

비영리기관과 함께 하는

제1회 삼일투명경영대상 시상식

주 최 삼일미래재단 주 관 삼일회계법인 후 원 매일경제신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공인회계사회 SBS



재단
법인

삼일미래재단

“

지금까지 사회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온 비영리기관이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평가받는
계기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

식 순

개 식

이사장 인사말 안 경 태 삼일미래재단 이사장

축 사 서 태 식 前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심사위원 소개

심사 보고 및 심사평 윤 병 철 심사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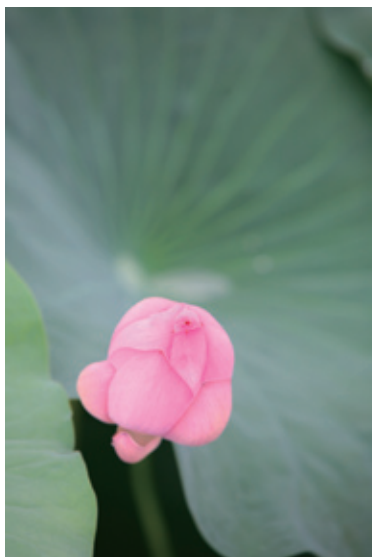
시 상

수상소감

수상기관 사례발표 박 두 준 아이들과미래 사무국장

폐 식

수상기관 기념촬영



삼일투명경영대상 제정의 뜻

삼일투명경영대상은 비영리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설립목적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운영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우수기관을 시상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개인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나눔의 실천을 위해서 투명하게 운영되는 우수 비영리법인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와 같은 투명경영 요소는 기부자의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삼일미래재단은 투명한 운영을 통하여 설립목적을 우수하게 달성하는 비영리법인을 시상함으로써 사회적 도움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해당법인이 우리 사회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또한 기부자들에게는 기부 의사결정에 필요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삼일투명경영대상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절차 및 기준을 통해 국제적인 권위를 갖는 상으로 발전하여 선정된 법인들이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우수사례로서 인정받는 비영리법인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사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삼일미래재단 이사장 안경태입니다.

제1회 삼일투명경영대상 시상식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재단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삼일미래재단은 2008년 3월 삼일회계법인이 기본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청소년들의 교육 및 생활환경 개선, 그리고 비영리공익법인들의 회계투명성 개선을 통해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비영리공익법인들에게 모기업인 삼일회계법인의 전문성을 살려 도움을 드리는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삼일투명경영대상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비영리공익법인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공익법인 숫자는 약 2만 7천여 개에 달하며 기부금 규모가 8조 6천억 원 정도입니다. 사실 공익법인의 수나 기부금 규모로 보았을 때,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이 꽤 큰 Sector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 10억 원 이상 공익법인의 회계공시가 올해 4월 처음으로 국제청을 통해 시행되었을 정도로 그간의 회계 투명성이나 정보공개 수준은 극히 미흡한 실정에 처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익법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기부금의 내용에 있어서는 개인 기부가 5조 2천억 원, 기업이 3조 3천억 원을 기부했으며 이중 80%는 종교단체에 기부된 것입니다. 기부문화에서 선진국인 미국의 예를 보면 기부금 수입중 기업에서 기부한 금액이 5% 정도에 불과하다는 통계자료와 비교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개인 기부 비중은 극히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개인 기부가 낮은 주된 이유중 하나가 개인 기부자들의 기부처에 대한 불신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의 개인기부문화가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지고 나눔의 실천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영리법인의 경영 투명성 제고가 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희 삼일미래재단은 투명한 운영을 통해 애초에 세웠던 설립목적을 우수하게 달성하는 비영리공익법인에게 삼일투명경영대상을 시상함으로써 그러한 법인들이 사회로부터 더 높은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상을 계기로 하여 많은 비영리법인들이 사회적 책무성과 투명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객관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문화가 자리잡게 되면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의 기부 문화가 점차 더 많은 개인들이 공적 기부에 활발히 참여하는 선진국 수준의 개인 기부 문화로 바뀌면서 우리나라가 더욱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회로 발전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1회 삼일투명경영대상 시상식에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대한민국 기부문화에 중요한 획을 긋는 순간을 함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삼일미래재단은 2009년 5월 18일 서류접수를 시작으로 서류 심사를 포함한 총 네 차례에 걸쳐 엄정한 심사 과정을 통해 수상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1차 심사위원으로는 삼일회계법인의 전문가들이 계량평가를 담당하였고 비영리공익법인과 윤리 경영에 조예가 깊으신 황호찬 세종대 교수님,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님께서 비계량평가를 진행해주셨습니다. 이어 1차 심사를 통과한 10개의 법인을 대상으로 윤병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님, 주인기 연세대 교수님, 박오수 서울대 교수님께서 최종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심사과정을 거쳐 오늘 이 뜻 깊은 상을 받게 되신 기관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후 진행될 수상식과 우수기관 사례발표 등을 통해 이 자리가 비영리법인 및 관계자들에게 좋은 정보 교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심사 뿐 아니라 이 상의 진행과정을 함께 해주신 윤병철 회장님, 김정호 원장님, 주인기 교수님, 박오수 교수님 그리고 황호찬 교수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함께 참여해주신 비영리법인 관계자들, 후원기관으로 도움을 주신 매일경제신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에스비에스, 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님을 비롯하여 아낌없는 축하를 보내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 경 태
삼일미래재단 이사장

안경태



축사

오늘 영광스러운 제1회 삼일투명경영대상을 받으신 여러 기관에 먼저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삼일투명경영대상을 창설하신 삼일미래재단을 대표하여 안경태 이사장님께서도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엄정한 심사를 맡아 주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윤병철 회장님과 연세대학교 주인기 교수님 그리고 서울대학교 박오수 교수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생기게 되는 사회의 취약한 부분을 여러 비영리법인이 보완하고 있으며, 국가에서 두루 살피지 못한 그늘진 구석을 여러 비영리법인이 따뜻이 보살펴 주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영리기업이라 할지라도 영리 추구만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회적 활동도 함께 하여야 모두가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기업도 번창하게 된다는 생각이 보편화 되어가고 있어서, 영리법인의 사회적 활동을 하나의 지속 경영의 필수조건으로 보는 경향이 있게 되었습니다.

영리법인이 사회적 활동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다른 비영리법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비영리법인은 기부자, 기탁자의 출연을 수입의 원천으로 하여, 이를 출연 목적에 맞도록, 무언중예, 공익을 위하여 '파레토의 최적'을 찾아 최대의 효과가 나도록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입과 지출이 투명하게 공시되지 않으면 참여자들은 일말의 의구심을 갖게 될 수도 있게 될 것이며 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면 '파레토의 최적'도 찾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는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기 어렵고, 지출행위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칫 기부문화가 위축 될 우려도 있게 될 것이므로, 투명성이 비영리법인의 활동에 하나의 절대적인 요건으로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그동안 뛰어난 전문가 집단으로서, 사회적으로 많은 칭송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직접 사회공헌활동도 많이 한 것으로 압니다만, 이번에는 사회공헌을 모범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찾아서 표창하고, '비영리법인의 투명성'이라는 가치를 적극 추구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승수효과'를 내도록 한 것은 참으로 독창적인 발상이며, 그 자체만으로도 또 한번 삼일회계법인이 칭송 받을 일을 시작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시작한 이 시상제도가 길이 이어져서 우리나라가 살맛 나는 좋은 사회가 되도록 기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상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며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태 식

前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前 아태회계사연맹 회장



심사 보고 및 심사평

삼일투명경영대상은 비영리공익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설립 목적의 실현을 위한 사업 운영의 책무성, 그리고 정보 공개의 투명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우수기관을 선정 하였습니다.

1차 계량 및 비계량 심사위원 그리고 2차 심사위원을 대표 하여 심사 보고 및 심사평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일투명경영대상의 심사 기준은 재무정보를 포함하여 비영리법인의 정보 공개에 대한 충실성과 공개된 정보의 양질성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 기본 정보 부분
법인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 기본 정보가 충실 하게 공개되어 있는가
- 필요 정보 부분
기부금의 모금과 쓰임새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포함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법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는가
- 설립 목적 부분
법인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법인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 조직 운영 부분
법인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는가,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들을 관리하고 있는가
- 사업 실적 부분
사업계획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사업 실적과 함께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가
- 재무 성과 부분
정확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무제표를 작성 하고 이를 공시하고 있는가

이러한 심사 기준을 바탕으로 서류심사를 통과한 14개 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6월 22일부터 3주에 걸쳐 1차 계량 및 비계량 심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10개 법인을 선정하여 8월 12일 최종 수상 법인을 선정하였습니다.

제1회 삼일투명경영대상에 지원한 법인은 모두 설립목적에 맞게 충실한 사업을 투명하게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법인의 홈페이지나 연차보고서, 소식지 등을 통해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그 중에서, 많은 비영리법인들이 모범 사례로 삼아 상생하고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전달되는 정보의 내용과 그 방법에 있어서 보다 우수한 법인을 선정하였습니다.

제1회 삼일투명경영대상을 받는 재단법인 아이들과미래는 홈페이지에 법인의 1년 수행 사업과 외부감사보고서를 공시하여 운영 성과와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였으며 지속가능희망보고서를 발간하여 5대 핵심전략 및 사업진행과정을 상세하게 제공함으로써, 기금개발사업 등 적극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인의 윤리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어 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미래는 심사기관 중 유일하게 위험관리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비한 법인이었으며, 조직구성과 운영 측면에서 미래지향적인 투명한 경영이 돋보였습니다.

수상법인을 포함하여 지원해주신 모든 비영리법인들이 투명경영을 위해 기울여 오신 노력을 치하를 보내며, 오늘 수상법인들의 사례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보 공시 방법을 공유하고 법인의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확립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도움을 드리고자, 시상식을 마친 후 서류 심사를 통과한 법인에게 개별 심사평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수상법인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이상으로 제1회 삼일투명경영대상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 병 철
삼일투명경영대상 심사위원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2009 제1회 삼일투명경영대상 수상기관

아이들과미래

수상기관 사례발표

I. 아이들과미래 소개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는 뜻 있는 벤처기업가들의 기금을 통해 설립된 민간독립 모금재단으로, 재정적·물질적 지원을 넘어 소외계층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부금의 투명한 사용과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윤리/책무성원칙, 위기관리규정, 기부금(품)운영원칙, 파트너십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아이들과미래는 국제청소년재단(International Youth Foundation, IYF)의 국내 유일 글로벌 파트너로서 2004년 “우수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이 인증은 IYF에서 지정한 13가지의 파트너 평가 지표에 따라 기관의 운영 방식, 전략의 효과,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여 수여된다.

• 재단개요

단 체 명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 (고유번호 120-82-05310)
대 표 자	송 자
소 재 지	서울 관악구 봉천동 729-21 눈높이보라매센터 5층
설립일자	2000년 3월 28일
설립배경	IMF 이후, 나눔이 넘치는 사회 조성을 위해 벤처기업가들의 순수 기부로 설립
지원대상	아동· 청소년 관련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소외 아동· 청소년
설립허가	보건복지부 허가 No. 832 사회복지사업법 제 16조
기부공제	지정기부금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해당 단체 - 개인 15%, 법인 5% 공제

• 지원사업

기획배분사업

소외 아동· 청소년 및 기관에게 교육· 문화· 예술· 정보 등 분야별 전문영역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장기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아이들이 스스로 라이프스킬을 개발하고 미래에 대한 목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결연배분사업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하고 있는 암환자가족,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저소득가정 등 다양한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에게 경제적 지원을 비롯해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재능을 키우고 목표지향적인 삶을 계획 할 수 있도록 지원

커뮤니티지원사업

지원이 필요한 사회복지 단체를 대상으로 운영 멘토링 프로그램, 전문 교육, 시설 건립 등 욕구에 따른 영역별 프로젝트를 수행

기금개발사업(캠페인/이벤트)

소외 아동· 청소년 복지 분야의 사례를 발굴하여 사회인식 확산을 위한 이벤트 및 캠페인을 진행하며, 수혜대상의 확산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부전용 사이트 '도네이션(www.donation.or.kr)'을 운영하여 기부활성화 사업 실시

II. 재단 윤리규정

구분	내용	아이들과미래 준수 방법
윤리 준수	1. 법인 미션과 전략의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단운영의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을 강조하여 법인의 사회적 책무성을 다함 기부자 중심의 사업을 지향하며 차별화된 사회공헌 모델제시
	2. 운영규정의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금(품)개발 윤리규정을 준수함 (기부금의 개발원칙준수, 기부금수수의 제한, 기부금 반환, 기부자 개인정보 보호, 기부금 관리원칙, 기부금 공개원칙 등 투명성을 위한 윤리규정)
	3. 국제청소년재단의 한국파트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청소년재단(IVF)의 유일한 한국 파트너로서 투명성과 사업의 전문성을 인증 받음

• 운영전반에 관한 윤리규정

비영리조직의 윤리적 운영과 활동을 위해서는 사회적 요구와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윤리성을 갖추어야 한다. 아이들과미래는 책무성을 실현하기 위해 정보 공시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운영전반에 관한 윤리규정과 기부금(품) 개발에 대한 윤리규정을 확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1. 아이들과미래는 모든 사업의 수행시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권리와 권익을 보호하는 후원자의 역할을 한다.
2. 아이들과미래는 어떠한 시장의 압력이나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후원자원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를 취하지 않으며 철저하게 공익적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한다.
3. 아이들과미래는 자율과 독립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단체의 활동과 정책적 입장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투명성, 책무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4. 아이들과미래는 국가주의, 권위주의, 가부장제, 학연·지연 등 전근대적인 사회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사상, 종교, 인종, 성별, 연령, 지위, 계층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5. 아이들과미래는 아이들의 대안적 성장환경과 교육문화를 만들어내는 소명감을 갖고 생활과 운동 속에서 나눔의 실천을 숭선수범하는 삶을 살아가는다.
6. 아이들과미래는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간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연대정신으로 상호 협조하면서 아이들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사회를 발전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7. 아이들과미래는 조직관리, 활동, 보고, 기금 지원자들과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표준을 유지한다.
8. 아이들과미래는 법률을 존중하고 법률에 대해 책임을 가진다.
9. 아이들과미래는 활동 상 연계 되는 개인 후원자와 후원기업, 아이들의 정보 기밀을 유지한다.
10. 아이들과미래는 가능한 한 조직의 활동과 서비스의 유지, 발전에 자원봉사자, 후원자, 후원기업의 참여를 최대화하며 기회균등의 원칙을 지킨다.

- 기부금(품) 개발 윤리규정

아이들과미래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되, 본 법인의 성격상 기부금을 받아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므로 법인의 사회적 책무성(투명성, 책임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행기준을 제시한다.

(기부금 개발원칙)

- 법인은 기부금 개발 시 사업내용과 기부금의 용도, 수혜대상, 처리절차에 관한 방법들을 정확히 안내하고, 모금에 관한 관련법규를 준수하며 법인의 미션과,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모금한다. 법인은 기부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며 기부자의 의사에 반하는 모금활동은 즉시 중단한다.
- 법인은 기금개발 시 명확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 기부자 의사결정에 합리적인 도움을 주고, 기부금 개발 실적에 근거한 어떠한 금전적 또는 신분상 반대급부 등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기부금 수수의 제한)

- 법인은 법인의 미션과 비전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기부금, 명예와 사회적인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부금, 불법적인 행위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기부금, 수혜자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기부금의 경우, 수수를 금지한다. 또한 기부금(품)을 합법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와 규정의 범위를 벗어난 기부금 수수 거부결의는 이사회회의 권한이나, 사안에 따라 사무국이 권한을 위임받아 행할 수 있다.

(기부금의 반환)

- 기부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특수한 상황(법적, 사회적, 법인 환경 등)에 처한 경우와 행정상의 착오와 오류로 인해 기부금 접수가 잘못된 경우에 기부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또한 기부 목적에 따라 충실히 사업을 수행하였음에도 효율적인 예산집행결과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기부자와의 협의 하에 반환, 용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기부자 개인정보 보호)

- 기부자, 기금 수혜자에 관한 정보를 본래의 목적, 의사에 반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기부금 관리비용)

- 독립기금은 연간, 사업종료 시 총 기금수입의 3%를 행정비용으로 별도 책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기부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 지정기부금은 사업예산 수립 시, 20% 내외의 간접경비를 예산에 편입하되 기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기부금 관리원칙)

- 지정기부금(품)에 용도, 수혜자 등이 구체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기부자의 뜻에 따라 사무국에서 집행하고 지정기부자에게 사업결과를 별도 보고한다. 또한 지정기부금(품)이 사업계획서상 지정사업 분야로 반영되지 못할 경우에는 사무국에서 기본사업 계획(안)을 작성, 기부자와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결과를 후원자에게 보고한다.
- 기부금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집행 시 세입원별 세출내용을 분리하여 집행한다.

- 기부금 개발에 필요한 홍보, 기금개발사업 등 기금개발비용은 연간 총 기부금의 20% 이내에서 사용한다.
- 기본재산 운용소득은 사업종료 1년 이내에 70% 이상을 목적사업비(인건비, 운영비 포함)로 집행하고, 일반기부금(비지정기부금, 운영기부금)은 50% 이내에서 인건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기부금 공개원칙)

- 기부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정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인 내부회계감사, 외부회계감사의 결과와 수입내역, 사용내용을 법인 홈페이지, 연간보고서, 소식지 등으로 기부자에게 공개한다.

Ⅲ. 내·외부 공시 시스템

구분	내용	아이들과미래 준수 방법
감시 기능	1. 자체감사(내부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1회 법인 감사(공인회계사)와 이사회, 사무국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투명성 검증 국제청소년재단(YF)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과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2004년도에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국제청소년재단으로부터 인증서를 받음(전 세계 70개국 국제 청소년재단 파트너 전체 평가) - 내부 회계 통제 및 업무관리를 위한 정보공개 ERP(자원관리 시스템) 운영
	2. 외부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1회 공인된 회계법인에 의해 외부 감사를 실시하여 투명성을 검증 받음(미국 상위 5대 회계법인과 협약된 한국 상위 5대 회계법인 감사, 국제청소년재단 파트너 준수사항)
	3. 정부감사(세무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2회 기부금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 유지

- 내부공시 시스템 :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자원관리 시스템

시간이 지날수록 자원은 범람하지만 축적되어가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란 쉽지 않다. 더욱이 업무의 전문화에 따라 각 부서는 분산되어 있고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각종 자원을 ERP시스템으로 서로 연결하고 있다. ERP는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기업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BPR :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열풍과 함께 강력한 차세대 정보기술로 등장하였다. 기업입장에서는 ERP를 도입하여 획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는 셈이다.

ERP시스템은 비단 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 단체 등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원하는 곳에서는 모두 적용되며 필요하다. 특히 모금단체의 경우에는 기부자의 기부금을 통해 지원 사업을 진행하므로, 기부자 관리, 후원금 관리, 배분사업, 자원봉사자, 회계, 홍보 등 모든 업무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아이들과미래는 지난 2007년 말부터 ERP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적 정보관리 및 활용을 통해 모금재단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혁신을 꾀하고 있다. 특히 아이들과미래의 ERP는 모금단체의 특성에 맞게 새롭게 고안되어 기존의 ERP와는 차별화 된 모금단체 전문 정보관리를 가능하게 했다.

ERP 도입 시, 기업 CSR 프로젝트별로 효율적인 예산 및 사업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맞춤형 ERP 설계, 운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사업별 예산의 지출근거를 관리함으로써, 회계 팀과 예산관리의 교차 체크 운영이 가능해 졌고, 내부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재단의 모든 직원은 회계의 지출 내역을 언제든지 볼 수 있어 내부 통제장치의 기능을 갖고 있다.

아이들과미래는 ERP를 통해 전자결재, 사업관리, 스케줄관리, 결의서 작업, 후원관리, 그룹관리, 직원정보관리, 사내커뮤니케이션, 이메일발송 등 재단 전반의 업무를 원스톱(One-stop) 처리하여, 한정된 자원을 사업 전반에 유기적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뉴스레터, 연간보고서, 홈페이지를 통해 동 운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 외부공시 시스템 : 외부감사 - 투명성 통제 시스템

세계 최대의 어린이·청소년 전문기구인 국제청소년재단(International Youth Foundation, 이하 IYF)은 1990년 설립 이래 수백 개의 기업, 재단, 비영리기구와 함께 아동·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산시키고, 장기적이며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IYF는 글로벌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을 전 세계 파트너기관을 통해 수행하고 있으며, 아이들과미래는 2001년 국제청소년재단(IYF)의 한국 파트너로서, 글로벌 기업 노키아, 루슨트 테크놀로지스의 한국 CSR 프로젝트 파트너로 전략적 제휴를 하게 되었다.

이때 IYF와의 MOU 항목에 미국의 빅 5 회계법인과 파트너십을 가진 한국 내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는 조건에 합의하였다. IYF는 매년 사업수행 평가를 위해 평가보고서 IGI(Instrumented Group Interview) 설문조사와 그룹토론을 결합한 프로그램 평가도구를 사용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 프로그램 평가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Annual Meeting을 통해 사업수행 기관들에 대한 교육과 의견 수렴을 받는 등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에 아이들과미래는 2001년~2009년까지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 감사보고서를 국문과 영문으로 제작하여 IYF와 글로벌 기업에 보고하고 있으며, 제휴의 과정과 사업수행, 관리, 평가 등을 통해 선진 노하우를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글로벌재단으로의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비영리분야에서 외부감사를 받는 것은 아이들과미래가 최초로 도입한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 외부감사의 비용이 비영리조직에서 부담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나 이 비용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글로벌 기업들은 외부감사비용을 당연히 일정부분 부담하고 있으나, 국내기업들은 몇 년 전 만 해도 외부감사 비용부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정하는 추세이다. 기부금이 투명하게 사용되기를 원하고 검증이 필요하다면 예산규모에 배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IV. 아이들과미래 공시현황

구분	내용	아이들과미래 준수 방법
정보 공개	1. 홈페이지 공개	• 월별 기부금수입현황과 내·외부 감사결과, 재무정보 등을 재단홈페이지(kidsfuture.or.kr)와 기부전용 홈페이지(donation.or.kr)에 공시함
	2. 인터넷 공시 사이트 공개	• 비영리단체의 사업과 회계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국가이드스타에 공시
	3. 연간보고서 발간	• 연간보고서를 통해 사무국의 예산(수입, 지출)과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 • 호주회계사회 비영리연차 및 재무보고 가이드라인을 국내에 맞게 개작한 삼일회계법인의 연간보고 가이드라인 준수
	4. 뉴스레터 발송	• 매월 뉴스레터 발송을 통해 기부자에게 기부금 내역과 사업 지원내용을 보고함
	5. 후원자 개인보고	• 기부자 발생 시 후원자에게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 지출내역서, 기부금 납입증명서(연1회)를 발부하여 기부자에게 전달 • 후원기업에는 별도의 프로젝트 진행 결과보고서를 전달
	6. 국세청홈페이지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에 따라 자산규모 10억 이상 공익법인은 결산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

- 도네이션 (www.donation.or.kr)

도네이션(www.donation.or.kr)은 아이들과미래가 2009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기부 사이트이다. 이는 국내 모금 단체에서는 최초로 시도된 마케팅적 접근방법이다. 마케팅 홍보의 주요 방법 중 인터넷 마케팅 홍보에서 기업 홈페이지는 '정보제공형 홈페이지'와 '상품판매형 홈페이지', '혼합형 홈페이지'가 있다. 아이들과미래는 기존의 '혼합형 홈페이지' 관점의 재단 홈페이지(www.kidsfuture.or.kr)를 '정보제공형 홈페이지'와 '상품판매형 홈페이지'로 분리시켰다.

이는 기부자의 욕구를 반영한 것으로, 기부자들이 쉽게 하나의 기부 전용 창구에서 기부 품목을 선택하여 후원하고, 기부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기부를 일종의 상품으로 간주하여 마케팅적 접근을 시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도네이션에서는 사연모금, 프로젝트모금, 캠페인/이벤트 모금, 물품후원 및 요청, 도네이션카드 등 다양한 기부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며, 기부참여 및 지원 후기, 기부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도네이션에서는 개인별 기부내역을 보다 상세히 공개한다. 모금현황이 실시간으로 보여지고 배분 진행상황을 공개한다는 점, 내가 후원한 기부 내역을 각 후원 상품 내 아이콘으로 확인, 또는 개인정보관리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는 점에서 모금단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부자의 알 권리를 보장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주목할 점은 기부와 관련하여 수혜자-기부자간 쌍방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 연간보고서 발간

2009년 아이들과미래는 발간 9회째를 맞아 사업, 모금, 운영 전반에 걸친 심도 있는 조사와 분석을 통해 재단의 비전을 제시하는 장기발전적인 연간보고서, ‘지속가능희망보고서’를 제작했다.

2008 연간보고서 ‘지속가능희망보고서’ 수록 내용

- 당해년도 진행 결과를 토대로 장기비전 제시
- 이해를 요하는 용어에 대한 하단 각주 설명
- 재단 윤리규정 및 위기관리 매뉴얼 제시
- 프로젝트 진행 및 모금에 있어 운영 원칙 삽입
- 자원봉사 활동 내용 및 가치 수치화
- 사업분야별 목표 및 달성 삽입
- 모금 및 배분 내용 분석
- 금액별 기부자 명단 공개
- 협력기관 및 인물 공개
- 우수 활동 사례 소개(수혜 아동/청소년, 지원기관, 자원봉사자 분야)
- 이사회 및 조직 관련 사항 상세 설명
- 재무제표 및 주석 삽입
- 2009년 보고서 작성을 위한 설문조사 첨부

영리기업의 경우 매년 영업보고서로써 연간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국가기관에서 법적으로 요구하는 재무제표를 포함하여, 일 년 동안 달성한 각종 목표, 진행 중인 사업개요 및 향후 계획 등에 관해 기업의 이해관계자들(투자자, 고객, 정부, 직원 지역사회)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 된다.

비영리기관의 경우 비록 영리기업의 보고서와 내용 혹은 구성은 다를 수 있으나 취지는 유사하다. 더욱이 비영리기관의 경우는 기업 및 단체, 개인 기부자들의 기부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연간보고서 발행은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일종의 의무와도 같다. 하지만 현재 국내 비영리분야 연간보고서 제작은 일부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최근에야 대두되었다.

아이들과미래는 2000년 창립이후 매해 연간보고서를 발간하여 사업 및 회계정보를 공개해 왔다. 아이들과미래의 연간보고서 제작은 자체 ‘윤리/책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의 ‘정보공개’ 필수 항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2002년부터는 연1회 공인된 회계법인에 의해 외부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 결과까지 연간보고서에 수록해 공개하고 있다. 이는 국제청소년재단의 파트너 준수사항으로, 미국 상위 5대 회계법인과 협약된 한국 상위 5대 회계법인 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올해 제작된 2008 연간보고서는 호주회계사회(The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in Australia)의 비영리연차 및 재무보고 가이드라인(Enhancing not-for-profit annual and financial reporting)을 적용해 보고서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했다. 단순 ‘정보나열형’이 아닌 ‘정보분석형’, ‘발전지속형’ 연간보고서를 추구해 기부자 및 파트너기관의 이해증진을 도모한 것이다.

특히 모금 및 배분 분석을 통해 2008년 재정상태 등급을 산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선단체 분야 평가기관인 Charity Navigator(체리티 네비게이터)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조직의 효율성(efficiency)과 능력(capacity)을 평가했다. 또한 10주년이 되는 2010년분부터는 공신력 있는 제3자의 보고서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이들과미래는 동 연간보고서를 홈페이지(www.kidsfuture.or.kr), 소식지(e-뉴스레터), 한국가이드스타(www.guidestar.or.kr), 기타 유관 기업 및 재단에 공시하고 있으며, 기부자 및 관련 파트너에 배포하고 있다.

아이들과미래의 연간보고서는 지속적 방향성을 갖춘 NPO 최초의 보고서로서 비영리분야 정보공개 수준을 제고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 연간보고서는 한 해를 총 망라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다. 홍보가 아닌 진정성을 기본으로 한다면 대중에 단체의 투명성을 인식시킴과 동시에 막대한 영향력과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V. 비영리기관의 책무성 실현이 주는 의미

아이들과미래는 설립 이래 비영리 모금기관으로써 책무성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적극적인 공시활동을 펼쳐 왔다. 현대 사회는 비영리 조직의 가치와 이념, 기능과 역할, 그리고 나아가 윤리와 책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비영리 조직은 단순히 이타적 개인이나 집단의 자비심과 정의심을 실천하는 조직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공적 존재로서 인식되고 있다. 비영리 영역에서 동원되는 자원의 양이 증가하고, 공익적 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에 있어서도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비영리 조직들은 더 이상 사업의 필요성과 정당성만을 근거로 지지와 인정을 얻을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조직 외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비영리 조직은 조직의 사업을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자원제공자들은 기업이나 정부조직과는 달리 비영리 조직이 공익성과 함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로서 비영리 조직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하는 것은 사업의 결과로서의 성과를 나타내는 것 뿐만 아니라 사업과 조직을 전문성, 투명성, 책임성의 차원에서 충실히 관리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원제공자들과 과업 위임자들의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이를 구체적인 조직운영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사회적 승인과 신뢰를 제공하고 있는 시민들의 요구이기도 한 것이다.

기부자와의 신뢰관계는 공평한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에 의해서만 지속되고 보장될 수 있다. 활동과 사업에 관한 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서로 다르게 갖고 있거나, 관련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신뢰관계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 이러한 신뢰관계 안에서 기부는 쌍방적이며 협력적인 활동이다. 기부금을 모금하는 단체에게도 기금을 투명하게 사용할 의무가 있는 반면, 기부자에게도 기부한 기금에 대하여 일정한 권리가 발생한다.

최근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비영리 조직들이 시민들로부터 양면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수의 시민들은 공익적 목적으로 조성한 자금을 사회복지분야에 기부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로서, 그 기관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을 하고 있고, 기부를 하는 경우에도 고려사항의 첫째 요소가 운영 및 재정의 투명성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조사들은 비영리 조직들에 대한 기부자 신뢰와 인식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 자원 동원과 조직 유지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비영리 조직에서의 활동과 운영의 투명성, 재정 관리의 투명성 확보는 자원개발을 성공으로 이끌어내는 기반이 되므로 비영리 조직들은 사업의 성과를 증명하여 가시화하고,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증거를 내보여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foundation.samil.com